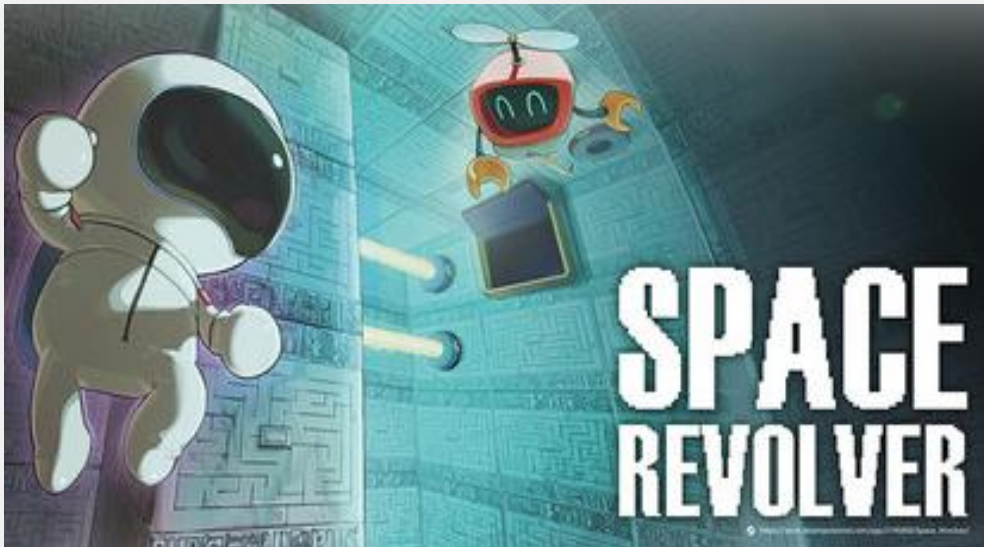




GAME NEWS

‘스페이스 리볼버’ 2026 플레이엑스포 첫 현장 시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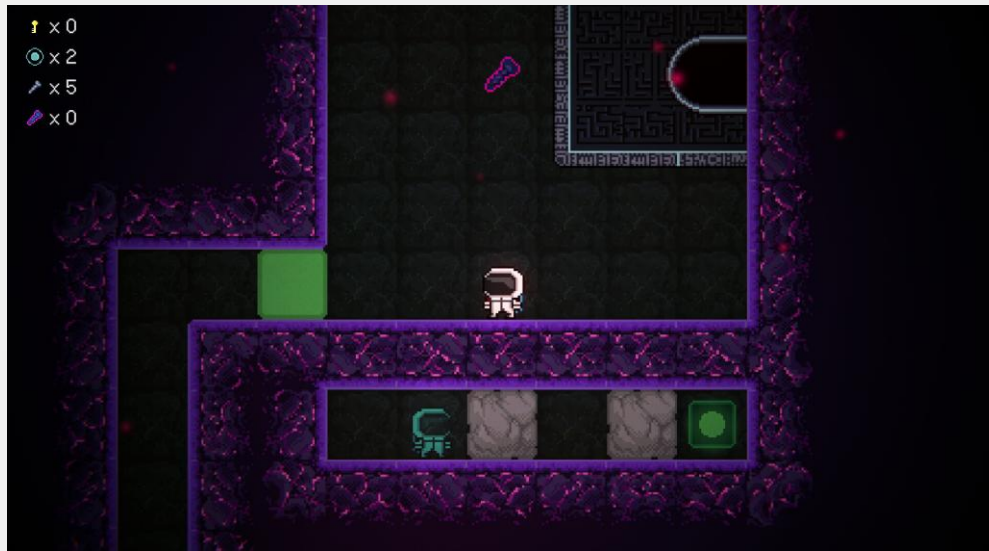
▲ [사진= Space Revolver 공식 스팀 상점 페이지]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 체결

지난 21일, 컴투스 홀딩스는 인디 신작 스페이스 리볼버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난해 열린 게임 챌린지 공모전에서 수상 받은 이 게임은 우주 속에서 여행하던 중 의문의 블랙홀에 휩쓸려 처음 보는 행성에 불시착한 이야기를 다룬다.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주선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들을 수집하는 과정을 다룬다. 플레이어는 맵을 회전시키거나 중력을 사용해 물건을 움직이는 등 탈출 경로를 찾는다는 독특한 플레이 방식을 플레이어들에게 제공한다.

‘스페이스 리볼버’ 2026 플레이엑스포 첫 현장 시연 제공



▲ [사진= Space Revolver 공식 스팀 상점 페이지]

SF 인디 게임 PlayX4 첫 공개 시연

‘2026 플레이엑스포’ 현장을 통해 최초로 공개되어 유저들에게 묘미를 선사한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인디오락실’ 공동관 및 ‘플리더스’ 부스에서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또한 다른 유저가 창작한 지도에 직접 도전하는 ‘유저 맵 체험’ 등 폭넓은 체험을 통해 ‘스페이스 리볼버’만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현재 스팀에서 글로벌 데모 버전을 공개함으로써 전세계 유저들의 피드백을 통해 후속 마무리 작업에 반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 출시되어 글로벌 게이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바이벌 호러 게임 Look Outside



▲ [사진= Look Outside 공식 스팀 상점 페이지]

코스믹 호러와 크리처물의 결합물

디볼버디지털 퍼블리싱, 프랜시스 콜롬브가 개발한 서바이벌 호러 게임 룩 아웃사이드는 스팀에서 ‘압도적 긍정’ 평가를 받을 만큼 게임성이 플레이어들에게 보장되어 있다.

룩 아웃사이드는 아파트 내에서 15일 동안 생존해야 하며 건물 내부의 사람들은 절대로 창문 밖을 내다보아서는 안 되는 규칙이 존재한다. 건물 내에서 모은 아이템을 토대로 괴물들과 던져 전투를 펼치게 된다. 무엇보다 플레이어가 얼마나 자원을 잘 배분하고 선택하는지에 따라 정반대의 결말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서바이벌 호러 게임 Look Outside



▲ [사진= Look Outside 공식 스팀 상점 페이지]

플레이어들에게 찬사를 받는 이유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창문 밖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규칙 아래 모든 것이 진행된다. 생존 RPG 게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모은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점차 성장을 할수록 더 넓은 지역 탐사와 이벤트를 마주칠 수 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은 뛰어난 스토리성이다. 왜 사람들이 창문 밖을 쳐다보면 괴물로 변하는지에 대한 코즈믹 호러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플레이어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9가지 결말로 나타난다. 고어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긴장감을 더해주며, 짜임새 있는 서사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게임 아이콘 서울’ 글로벌 인디게임 모임의 장 개최



▲ [사진= 게임 아이콘 서울 공식 사이트]

인디 게임 글로벌을 마주치다

2026 게임아이콘 서울이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하여 개발사 및 게임 솔루션 기업들이 모여 국내 인디계 개발자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글로벌 매칭 플랫폼인 MeetToMatch를 통해 미리 미팅을 예약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리더들의 키노트와 패널 토크를 통해 AI가 게임 산업에 어떤 영향성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유망한 인디 게임들과 최신 기술 솔루션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토론의 장이 펼쳐지면서 해외 진출 시 맞닥뜨리게 될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과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다.

‘게임 아이콘 서울’ 글로벌 인디게임 모임의 장 개최



▲ [사진= 게임 아이콘 서울 공식 사이트]

‘아시아 게임 사운드 서밋’ 콜라보 진행

이번 게임 아이콘 서울은 아시아의 게임 사운드 및 오디오 전문가들이 모이는 축제인 ‘아시아 게임 사운드 서밋’과 콜라보하고 있다. 26일 6시에 진행되는 ‘Opening Night: The Sound of Play’는 네트워킹 리셉션과 함께 라이브 콘서트 공연이 진행된다. 게임 오디오 및 게임 산업 전문가들의 네트워킹과 동시에 서로 간의 지식 공유가 가능하다.

27일의 경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작곡가와 와일드게이트의 작곡가 등 저명한 게임 업계 전문가들의 연사를 들을 수 있으며 특히 국악 사운드를 현대 음악에 어떻게 접목하는지에 대한 세션이 진행된다.